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주일 오전 11:00
저녁기도회	월-목요일 저녁 8: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유초등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청 소 년 부	오후 1:00	마리아회	오후 1:0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1:00
		에스더회	오후 1:00

섬기는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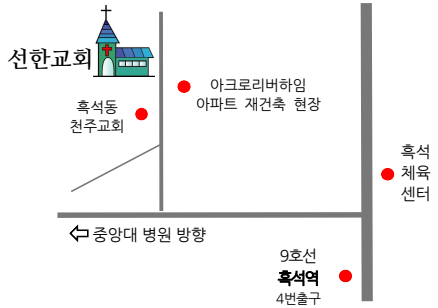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전임전도사 권 인 혁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김 대 희
박 희 태
조 윤 익
한 배 선

파 송 선 교 사 강 성 규 (러시아)
협 력 선 교 사 양 병 순 (카자흐스탄)
이 금 주 (M국)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관 리 장 로 손 석 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한교회
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06987 서울 동작구 서달로 110-10 2층 (흑석동 86-6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천사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삶의 방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 송 구 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엡 4:22~24)

기독교 한국침례회 선한교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11:00 —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원	인도자
찬양과 경배	31장 (통일찬송가 46장)
교독문	교독문 35번(시편 84편)
찬양과 경배	546장 (통일찬송가 399장)
예배기도	김대희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말씀봉독	**출애굽기 39:42~43**
설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임춘배 목사)
헌금드림	김현석 김희상 김석범
환영 및 광고	인도자
파송의 노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도	임춘배 목사
송영	드림성가대
성도의 교제	다함께

수요 예배

추석가정예배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후청소** 예배후 부서별로 정리 및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 **추석가정예배** 이번주 새벽예배 및 수요예배와 금요철야예배는 가정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3. **정오기도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배준비 안내 및 정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산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상도셀**입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가정예배

“네가 어디 있느냐?”

찬송 :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통 137)
신앙고백 : 사도신경
본문 : 창세기 3장 8~15절

말씀 :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셨을 모습과 안타까워하셨을 모습을 함께 나눠 봅시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만지시고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며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너무 잘 숨어서 하나님이 못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탄식입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들리진 않습니까. 주님과의 아름다웠던 관계가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마치 범죄자 지명수배하듯 찾아내 신문하시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죄로 인해 부끄럽고 멀어진 우리를 향해 돌이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지으신 손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불순종과 방황의 이유를 환경 탓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시 51:17)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불순종했고 온전한 회개조차 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궁극적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한 여인 하와를 통해서도 여전히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열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인지, 자신의 신앙상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보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소리는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모습이 비록 부끄럽고 추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합시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출39:42-43)**
서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새성전 건축의 모든 역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본론	1. 성막완성 (1) 출애굽한지 둘째 해 첫째 달 1일에 성막을 세우는 모든 역사를 마침 (2) 출애굽기 39-40장에 여러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함 (4)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 2. 교훈 (1) 순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2) 축복을 받기 앞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자. (3)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결론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김대희 장로	유신웅 장로
헌 금 위 원	김현석 김희상 김석범	신영문 신희강 안기연
안 내	안산셀	상도셀

2017년 추석 가정예배

인도자 / 가족 중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묵상기도 / 다같이

찬　　송 /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통일 460장) / 다같이

대표기도 / 맡은이

성경말씀 / 시편 23편 / 다같이(교독)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5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7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설　　교 /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 맡은이

추석은 옛날부터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가을 풍성한 오곡백과의 수확을 감사해서 모든 가족들이 한곳에 모여서 술과 떡과 음식을 장만하여 한 해의 풍년을 조상신에게 제사로 차례를 지내고 가족 간,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었던 좋은 명절입니다. 이 추석이 바로 한국적 추수 감사의 날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던 옛 시대에는 조상들에게 감사했으나 이제 예수 안에서는 참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곡식과 열매를 결실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1.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사람은 과거를 잊으려고 합니다. 특히나 괴롭고 눈물 나는 쓰라린 과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홀로 있었던 것 같은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날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합시다.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사랑으로 돌봐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현재를 감사합시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으로 하루하루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우리는 매일 감사할 수 있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복을 늘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금년에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3. 미래를 믿으며 감사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과거, 현재, 미래의 복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다 오직 하나님께만 풍성한 감사로 제사드려 자자손손 대대로 복 받는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　　도 / 설교자

찬　　송 / 공중 나는 새를 보라 (588장/통일 307장)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